

운문사 '총본산성역화 불사' 3억원 쾌척

전주 공립학교 역사 교사 수업시간 특정 종교 '기도' 진화론은 가르치지도 않아 '몰의'

회주 명성스님 비롯해 십사일반 정성 모아... 승려복지 기금도 1억원



지난 2일 운문사가 총본산 성역화 불사 기금 3억원과 승려복지기금 1억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비구니 스님들의 요람인 운문사가 종단 핵심 과제인 총본산 성역화 불사와 승려복지지 위해 정성을 보냈다. 청도 운문사(주지 진광스님)는 지난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기금 전달식을 갖고 총본산 성역화 불사 기금 3억원과 승려복지기금 1억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지정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승가사 주지 정호스님, 내원사 주지 진성스님, 운문사 주지 진광스님, 총동문회장 금타스님, 재무 송운스님, 학감 운산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번 운문사의 기금 전달은 종단 핵심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회주 명성스님의 원력에서 비롯됐다. 회주 명성스님은 "성역화 불

사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할 대작불사"라고 당부하며 스님들의 동참을 당부했고, 이에 운문사 대중 스님들과 승가대학 동문 스님들이 십사일반으로 정성을 모아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 특히 지난 8월25일 조계종 역사문화관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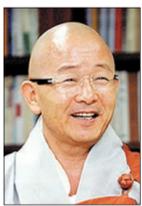
원조사업추진위원회 현판식 이후 이날 운문사가 처음으로 기금 전달에 동참함에 따라 앞으로 성역화 불사 모연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날 전달식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성

역화 사업은 사무적, 행정적 어려움을 넘기고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일만 남았다. 운문사에서 기금을 전달해 주셔서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정성을 보태줘 감사드린다. 유용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승려복지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앞으로 5~6년 전후로 종단이 스님들의 승려복지를 해결하는 날이 올 것"이라며 "운문사에서 동참하는 금액이 종단 승려복지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달식에 이어 학감 운산스님은 "성역화 불사와 승려복지 모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회주 스님의 말씀을 따라 스님들이 마음을 모아 전달하게 됐다"며 "이번 기금 전달 뿐만 아니라 앞으로 (11월16일로 예정된) 성역화 불사 모연의 밤에도 기금 전달을 계획하고 있다. 기금 전달을 계기로 스님들의 동참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본산 성역화 불사 불교계와 국민 모두를 위한 사업"



모연위원장으로 위촉된 혜총스님(부산 김로사 주지·사진)은 지난 3일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

혜총스님은 통발출단 출범 이후 최대의 불사이자 종단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소임을 맡게 된 만큼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종단을 위해 힘을 보탤 수 있어 보람도 크다"며 항

후 활동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조계사 일대를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성역화 불사가 "불교계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사업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번 사업이 불교계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온 문화융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스님의 지론이다. 이에 대해 스님은 "5000년 역사와 전통에서 불교문화를 빼 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며 "성역화 사업은 불자들만의 정성이 아닌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혜총스님은 지난 2일 청도 운문사가 총본산 성역화 불사 기금 3억원을 쾌척한 것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나타냈다. 혜총스님

은 "회주 명성스님을 비롯해 비구니 스님들이 큰 정성을 보내 주셨다. (운문사 기금 전달이) 앞으로 불자들의 정성을 모으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모연 계획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혜총스님은 "중정예하와 원로의원, 총무원장 스님부터 사미·사미니와 모든 불자들이 십사일반 정성을 모으면 성역화 사업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불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동참해 정성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불교계는 물론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이번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정성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추진위 상임부위원장
모연위원장 혜총스님

"처음 상임부위원장을 제안 받았을 때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수락할 주저했었습니다. 하지만 조계종 중도로서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아온 만큼 종단을 위해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수락하게 됐습니다. 종단을 위해 마

"지울스님 소송, 저항의 기록"

리나 콜레이라트, 토론회사 주장

"법적 소송을 통해 환경 파괴에 대한 저항의 기록을 남기는 것은 언제라도 재검토되고 재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소송이 진행되면 환경 문제에 반응하는 사법체계 과정이 세세히 기록될 수밖에 없으며 환경 활동가들은 이를 언제든 활용할 수 있다. 지울스님의 법적 소송이 특별한 이유가 여기 있다."

호주국립대에서 역사학 및 인류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리나 콜레이라트 씨가 지난 2일 조계사교육관 2층 강의실에서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와 내성천의친구들이 주최하고 불교환경연대가 주관한 '기록은 역사를 바로 세운다'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4대강 사업과 내성천 훼손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콜레이라트 씨는 '어주 특별한 소송, 지울스님의 법적 여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리나 콜레이라트 씨는 "지울스님은 소송을 통해 공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펼칠 뿐 아니라 개발사와 정부를 불편한 자리(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므로써 그들이 생태계를 해치지 않는다는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공공의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추적 가능한 저항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템플스테이 중학교 '진출' 내년부터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진어어 탐승 외국인 할인 혜택

중학교 정규교육 현장에 템플스테이가 도입되는가하면, 일부 국제항공사가 문화사업과 제휴해서 외국인 탐승자에게 템플스테이 참여특혜를 주는 등 템플스테이가 교육문화의 장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스님)은 지난 3일 언론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템플스테이 지원프로그램과 제휴행사 등을 공식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홍보는 일선 중학교 정규교육에 템플스테이가 자리잡아가는 이른바, '자유학기제 템플스테이 체험 지원'이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동안 수업 운영형태를 토론이나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해서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고

다양한 진로탐색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부정책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문화사업단은 이같은 정부의 자유학기제 정책에 동참하는 한편,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전통문화체험을 통한 자기성찰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자유학기제 템플스테이 체험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동대부여자중, 청담중, 능인중, 정광중, 금정중, 해동중 등 전국 13개소 중립학교 중학교 재학생 500여 명.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 체험사찰은 지원 대상 중학교와 인접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로 대구 동화사, 서산 부석사, 남양주 봉선사 등이 확정

됐다. 문화사업단은 측은 불교 중립학교에 소속된 중학교를 1차 지원대상으로 선정해서 운영한 뒤, 차후 전국 중학교를 대상으로 정례적인 템플스테이 지원프로그램을 넓혀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사업단은 이외에도 항공사 진어어와 업무제휴를 맺고, 이달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진어어를 이용하는 외국인 탐승객에 한해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에서 각각 20%, 10%의 참가비용을 할인받고 데일리 템플스테이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김단민 문화사업단 홍보팀장은 "템플스테이의 외국인 참가자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항공사와 홍보와 마케팅 제휴, 다양한

외국인 참가자의 체험을 유도하고 한국 불교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 저변 확대뿐만 아니라 국경을 뛰어넘는 국제사업과 문화콘텐츠 전시 등도 계획하고 있다. 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와 관련된 다양한 전통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실시해 온 불교문화관광콘텐츠 공모사업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작품 30여 종을 오는 23일부터 10월5일까지 한국불교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전시할 계획도 갖고 있다. 단청과 꽃살문, 사천왕, 불교설화 등 다채로운 불교디자인과 불교특허상품 등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문화사업단은 또 최근 중국사회경제문화교류협회와 항주불교문화연구회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 한중불교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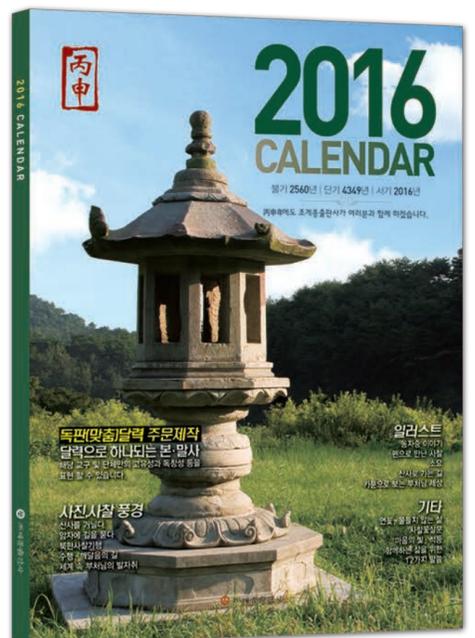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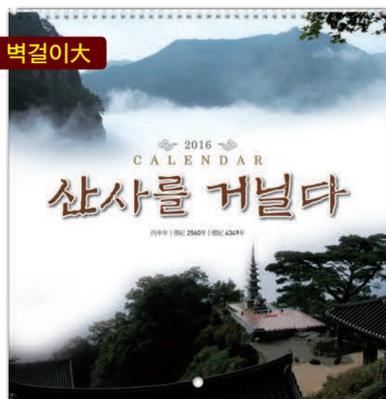
하정은 기자 tomat07@ibulgyo.com

주문
접수

사찰만족 고품격 캘린더를 만들어드립니다.

총 38종 기성달력 종류

벽걸이(대·소)14종, 숫자판1종
탁상, 수첩, 미니 각3종



조계종출판사 홈페이지에서
2016년도 달력샘플북을
E-book으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